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즈음하여 . . .



이 홍 지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전국 근로자 및 사업주, 그리고 산업안전관계자 여러분!

7월은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서 안전·보건에 종사하는 관계인사는 물론 예방기관 및 단체 모두가 뜻깊게 여겨지는 달입니다.

제32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 IMF체제하에서 기업들마다 구조조정 등의 온갖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64년부터 98년도까지 32년 동안 약 3백10만명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으며, 그 중 약5만명이 목숨을 잃었고, 신체장해자수도 42만명이 발생되는 등 산재 다발국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95년 재해율이 1% 미만대로 떨어지면서 98년의 경우 0.68%라는 성과를 이룩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다른 경쟁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이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첨단화·과학화·세분화됨에 따라 재해의 형태도 복합적 원인에 의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직업병도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를 위협하고 있고, 산업현장 일선에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계자들은 지난 97년의 기업활동규제완화와 98년 IMF로 인해 여러분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이는 어느때 보다 안전관련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안전관계자들이 산업재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기법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것이며, 안전인 여러분이 산업현장의 근로자 생명보호를 책임지는 파수군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계기관에 다양한 대안제시로 안전관계자의 위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상품백화점 붕괴 등의 대형사고 발생이나 매년 7월에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에만 안전의식, 자율안전 정착을 소리내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신산업안전선진화 기획단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도 우리의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과 인력의 능력을 최대한 가용화할 수 있도록 산재예방 단체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7월 6일은 우리협회가 서른다섯돌의 장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협회도 이에 걸맞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민간단체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련중인 신산업안전선진화계획과 더불어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전환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인간존중의 바탕인 "안전"을 사회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 정책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모든 근로자의 피부에 직접 느껴지는 실효성이 겸비된 계획이 되길 기대합니다.

산업안전보건강조주관을 맞이하여 새 천년을 대비한 겸허한 자세로 안전문화정착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하며 산업안전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매진합니다. 